

한국특허정보원 이종익 관리본부장 선임



한국특허정보원
이종익 관리본부장

한국특허정보원(원장 유영기)은 관리본부와 사업본부로 나뉜 체제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관리본부에 이종익 전 특허청 출원과장을 본 부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종익 선임 본부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한남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69년 체신부(현 정보통신부)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특허청 총무과 경리계장, 국제특허연수부 학사과장, 특허심판원 심판관을 거쳐 특허청 발명정책과 출원과장으로 재직해왔다.

한편 사업본부장은 한국특허정보원 이재정 현 본부장이 맡게 되었다.

장간마!

잘못 알려진 한약 상식

■ 한약을 먹으면 간이나 콩팥이 나빠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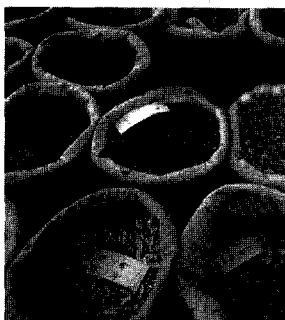
복용한 한약은 혈액을 타고 간장과 신장을 지나간다. 한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한약이 간이나 신장에 해롭다고 말하지만 한약이나 양약이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의하지 않으면 독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 보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

이것은 한약이 보기(補氣), 보혈(補血), 강장(強壯), 강정(強精) 등 4가지 작용을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주로 쇠약해진 몸에 활력과 체력을 보강시켜 질병을 막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약을 먹으면 장기가 튼튼해지고 소화기능도 회복돼 식욕이 좋아져 살이 찌 수는 있다.

■ 한약 복용 도중 무를 먹으면 머리가 센다?

요리하지 않은 생무는 숙지황과 상극이므로 머리가 희어질 수도 있다. 혹은 약효가 떨어질 뿐 머리가 세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김치에 들어간 무나 조리된 무는 써도 탈이 없다.



■ 여름철 보약과 한약은 맘으로 다 배출된다?

오히려 여름철에는 인체 기능이 많이 떨어지므로 노인이나 환자들은 보약을 먹어야 한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불순물이 빠져 나가는 것이지 보약 효과가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므로 계절에 상관없이 자기 몸 상태에 맞게 복용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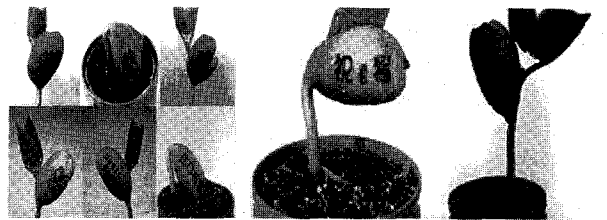
■ 어릴 때 녹용을 많이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혹은 둔해진다?

녹용은 피를 만들어 성장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지만 이것이 지능과 크게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양기가 많고 음기가 부족한 소아기나 공부하느라 체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청소년기에 체질에 맞게 보약을 지어 먹으면 발육이 촉진되고 학습 능력이 오르는 등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

어디서나 꽃 키우는 '켄 플라워' 등장

힘들이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꽃을 키울 수 있는 '켄플라워'라는 상품이 등장해 화제다. 이 제품은 특수 물질을 처리한 식재를 이용해 흙 없이 물만으로 식물을 키울 수 있어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다. 그것은 식재에 식물생장의 모든 영양소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모양은 음료 캔과 같지만 음료 대신 생명이 들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고 용기가 캔이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동 및 관리도 편리하다. 또한 매일 꽃을 키우며 광고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캔 표면을 이용한 광고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꽃이 주는 이미지가 광고와 연계돼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고 꽃나무가 1년 이상 큰다는 점도 긴 생명력을 요하는 광고 특성상 매력적인 조건이다.

이처럼 '켄플라워'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자연의 즐거움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들은 자라나는 식물을 보며 생명탄생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 교육용으로 좋고, 학생들에게는 친구나 연인을 위한 선물용으로 좋으며, 직장인들은 자연을 벗하며 업무 스트레스를 날리는 기분전환용으로, 주부들은 '나만의 정원'을 꾸밀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용으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글씨가 새겨진채 자라는 마법의 콩도 캔 플라워를 통해 키울 수 있다.

켄플라워 속의 꽃 종류도 아카시아, 해바라기, 허브, 방울토마토 등 38종이나 되고, 특히 글씨가 새겨진 콩이 맺는 마법의 콩, 건드리면 움츠러드는 미모사, 음악소리에 반응하는 음악수 등 특수 식물들도 있다. 특히 직접 '켄플라워'로 꽃나무를 키워본 직장인 차용권씨(43)는 '삭막한 도심에서 내가 직접 키운 꽃을 바라보는 즐거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켄플라워'는 대만 과학자 첸첸첸 박사가 개발해 세계 특허를 받았으며, 국내에서는 마이크로가든(www.microgarden.co.kr)이 판매에 나섰다. 가격은 5천원에서 6천원. 현재 마이크로가든에서는 에버랜드 등 유명 놀이동산과 판매 계약을 맺은 상태이며, 프랜차이즈를 모집하고 있다.

린나이코리아, 롯데기공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

린나이코리아가 롯데기공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린나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남태)는 린나이코리아(대표 강성모)가 롯데기공(대표 유정상)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롯데기공의 가스보일러 58개 모델에 대해 생산,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지난달 12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린나이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가스버너' 및 온수 흐름을 검지해 자동으로 온수를 공급하도록 하는 '수류스위치'에 대한 특허를 롯데기공이 무단으로 침해한 것이 인정되며, 롯데기공측의 다른 고안이라는 주장은 단순한 변형에 지나지 않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유 없다'고 밝혔다.

린나이 측은 조만간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까지의 피해액이 3백여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기공 측은 '린나이코리아가 제기한 실용신안 2건은 이미 선진국에서 공지된 기술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어 특허 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신청한 상태'며 '그러나 향후 특허 시비를 피하기 위해 문제되는 부품을 전량 교체해 새 모델을 출시했기 때문에 향후 영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린나이코리아는 지난해 9월 롯데기공 측을 상대로 특허 침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롯데기공은 이에 맞서 지난해 11월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심판소송을 냈으나 2건 모두 린나이코리아의 승소로 끝나 현재 상급기관인 특허법원에 다시 항소한 상태다.

책 속의 이야기 ⑤

세계적 기업가로 성장한 가정주부

독일의 벤츠 일가는 1908년 6월 어느날 아침, 운이 나쁜 출발을 하였다. 비가 오고 있었고, 멜리타 벤츠는 화가 나 있었다. 우유는 뜨거웠고 커피는 너무 진해 마실 수가 없었다.

화가 난 멜리타는 양철그릇 바닥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었다. 그 다음 압지(습기 빨아들이는 종이)를 동그랗게 오렸다. 그 압지를 큰 단지 위에 있는 양철그릇 속에 넣고 종이로 감싼 커피가루에 끓는 물을 부었다니 모든 찌꺼기들이 걸러졌다. 그렇게 해서 커피 필터가 탄생했다. 커피가루를 거르기 위해 천으로 꿰매 여러 번 사용한 린네르 '천 주머니'는 과거의 물건이 되었다. 멜리타 벤츠는 이 발명품으로 곧 유명해졌다.

1873년 7월 31일 태어난 멜리타 벤츠는 그저 평범한 주부였지만 빈틈없는 사업가이기도 했다. 커피 필터를 발명한 그날 특허신청을 하였고, 1908년 7월 특허를 받았다. 그녀는 곧 백화점 매장 매니저로 일하는 남편 휴고와 함께 회사를 설립, 멜리타라는 상표의 커피 필터를 알리기 시작했다.

1908년 12월 부터 멜리타는 가족과 함께 커피 필터를 만들었으나 점차 늘어나는 주문량으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 필요했다. 1914년 멜리타는 15명의 직원을 고용하였다.

1929년 벤츠 가는 하노버 서쪽에 있는 민덴에서 공장과 사무실 본부를 차려 지금까지 70여년 이상을 자리 지키고 있다.

커피 필터는 여러 해 동안 지속적인 성공을 했지만 멜리타는 이미 얻은 명예에 익숙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1932년 필터는 원추형으로 발전하여 커피를 좀 더 빨리 걸러내도록 개선되었다. 1940년에는 금속 보조기를 좀 더 단단한 것으로 바꾸어 커피 향기가 더욱 좋아지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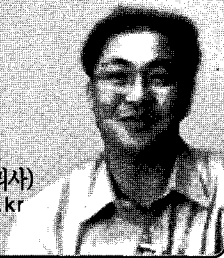
1950년 운명한 멜리타의 손자들은 그들의 할머니가 시작한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기본 상품은 종이 필터로 40종류가 넘는 모양과 크기의 다양한 커피 필터 생산에 사용되었다. 멜리타사는 생산 범위를 확장해서 진공 청소기 백, 종이 타월 등 종이로 만든 가정용품들도 생산하고 있다.

오늘날 멜리타사는 18개 국가에서 8천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1백5개 국가에 상품을 팔고 있으며 1년 매출이 약 9억 5천만 달러에 이른다. 현명한 독일 가정주부의 창의력과 끈 안목 덕분에 멜리타사는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 기 고 문 |

특허 분쟁에서
승소하는 법

백건수 (백건수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e-mail: patpen@patpen.co.kr
문의전화 (02)538-3951



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가 되었다. 내가 변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법률과 기술에 대한 상식을 모두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특허 소송은 법률과 기술을 논하는 최상의 분야이므로 나는 특허 분쟁을 좋아한다. 특허 분쟁을 통해 법률 이론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정밀한 기술에 대한 지식을 논할 수 있으므로 여간 신나는 일이 아니다. 물론 특허 심판을 앞둔 당사자 입장에서는 노심초사하는 일이지만...

특허분쟁은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민사, 형사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특허권이 침해품과 기술적으로 동일하면 별 문제가 없으나 서로 상이한 점이 있으면 양자간에 기술적 동일성이 있느냐 혹은 없느냐에 대해 공방이 이루어진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넓게 해석할 것이고, 침해자는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좁게 해석할 것이다. 그 범위의 넓고 좁음을 판정하는 것이 심판부 또는 재판부가 될 것이다.

우선 특허권자 입장에서 살펴보자.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넓게 해석하려면 '큰 발명은 큰 보호를, 작은 발명은 작은 보호를'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특허권 내용이 원천 기술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특허권 내용 중 핵심적인 사항을 계속 부각시켜야 한다. 이들을 결합하면 핵심적인 사항이 곧 원천 기술이 되고, 침해품과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 사항이 침해품에 포함되면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다.

또한 재판이나 심판에서 상대방인 침해자 측에 절차적인 잘못이 없는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인지, 중속 제소인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인지 등을 따져본다. 특히 상대방이 대리인 없이 혼자서 소송하더라도 무시하면 안되고 최선을 다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진술하여야 한다. 특히 이 경우 상대방의 법률적 지식의 미흡함을 약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침해자 입장이라면 자료 수집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의 특허권에 하자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보기 위하여 우선 특허원부를 특허청으로부터 발부받아 권리 현황을 분석한다. 상대방 특허권의 내용 중 공지부분을 찾아내 권리범위를 좁게 만든다. 침해품이 특허권의 내용대호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 특허권의 분야는 동종업자들이 유사품을 많이 만들었고, 관련 특허도 많으므로 상대방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자료를 통해 주장하는 것도 승소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다.

이러한 양 당사자간의 공방이 치열한데 승소만을 생각해 불필요한 주장을 하는 것은 낭비이고 헛수고다. 승소를 위해서는 논리정연해야 한다. 재판부나 심판부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논리를 펼쳐야지 기술적인 분쟁에서 감성적인 논리는 통하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니카드 바람이 불고 있다

현대카드에 이어 LG카드가 미니카드 발급에 나섰다. 다른 카드사들도 조만간 미니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며 비자카드사는 각 카드사들과 미니카드 발급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카드업계는 지난 8월 12일 현대카드가 미니카드를 첫 출시한데 이어 LG카드가 지난달 10일부터 미니카드 출시에 나서면서 미니카드가 카드업계의 새로운 상품으로 부상했다고 전하고 있다.

LG카드는 우선 레이디와 2030 등 젊은층이 선호하는 카드에 한해 미니카드를 발급해줄기로 했다. 이후 고객들의 반응이 좋으면 다른 카드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카드 역시 12월 중 미니카드를 선보이기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외환카드와 신한카드도 내년 1~2월 중 미니카드를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앞다투어 미니카드 발급에 나서기로 한 것은 현대카드가 미니카드를 선보인 이후 젊은층에서 미니카드에 대한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니카드는 신용카드와 같은 기능이 들어가지만 크기가 기존 신용카드의 절반 정도로 디자인이 예쁜 것이 특징이며

또 휴대용 케이스가 있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편하다. 다만 크기가 작기 때문에 ATM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해 미니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이 ATM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미니카드는 메인카드로 사용되기 보다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넣어 교통카드 용도로 사용하는 등 기존 신용카드의 보완카드로 사용되고 있다.

미니카드는 젊은층에서 특히 인기가 높아 지난 8월 22일 카드발급에 들어간 현대카드의 경우 신규발급 심사 강화에도 불구하고 4만5천매를 기록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미니카드는 비자카드와 특허를 가지고 있는 BOA가 독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비자카드로만 발급이 가능하다.



▲ 지난달 17일 LG카드가 레이디·2030 카드 비자브랜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미니카드를 선보였다.

아이버 게이버 박사 '발명에 집중하는 과학'을 강조

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인규) 분당회관 준공 기념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지난 73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아이버 게이버 박사는 초전도체의 투과현상을 실험적으로 증명해 노벨상을 받은 인물.

게이버 박사는 '이제 과학 이론은 대부분 밝혀졌다'며 '따라서 앞으로는 (이미 밝혀진 이론에 기반한) 개발과 발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게이버 박사는 '똑똑한 발명(clever invention)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 출신의 게이버 박사는 올해 노벨의학상이 인체 내부를 촬영하는 획기적인 진단법인 자기공명장치 개발에 공헌한 폴.C. 로터버 박사와 피터 맨스필드 박사 등에게 돌아간 점을 예를 들어 '뛰어난 발명이 노벨상 수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앞으로 발명의 방향은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그가 이처럼 발명을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제너럴일렉트릭(GE)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며 또 노벨상 수상 당시에도 GE 직원이었다는 경험이 바탕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은 대학이나 기초연구소보다 이론에 비해 발명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이버 박사의 '발명'에 대한 강조는 기초과학에 대한 탄탄한 실력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게이버 박사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미국 과학의 강점에 대해 게이버 박사는 '미국은 내가 태어난 노르웨이와 달리 나이든 사람들이 주도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준다'며 오히려 '한국은 어떤가?'라고 되물었다.

이번까지 네 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게이버 박사는 뉴욕주 트로이 소재 렌슬러 공과대학의 교수이면서 생물물리학 회사인 '어플라이드 바이오피직스'의 최고경영자이다.

◎ 생활 속의 지혜 ◎

감기 예방에 탁월한 전통차

평소 건강관리가 남다르다면 통과의례처럼 치르게 되는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 요즘 감기 예방 인기 품목은 몸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한방차. 가볍게 마시면서 허한 기운을 보양해 줄 수 있는 한방차 중 가장 대중적이고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어 마실 수 있는 전통차에 대해 알아보자.



구기자

구기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 말린 열매를 끓여 입맛에 따라 설탕이나 꿀을 넣어 마시면 좋다.

오미자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의 다섯 가지 맛이 난다고 하여 불려지는 오미자는 특히 기침과 가래를 삭혀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감기에도 좋다. 말린 열매를 찬물에 우려내 꿀이나 설탕을 타서 마신다.

쌍화차

감기 예방에 좋은 쌍화차는 당귀, 천궁, 작약, 숙지황, 황기 등 8가지 재료를 달인 것으로 여러 약재의 효과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다. 감기 예방뿐만 아니라 피로회복에도 좋다.

오근차

구기자, 오미자, 맥문동, 쑥, 감초, 계피, 대추 등을 넣고 달인 오근차는 혈액순환,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며 따뜻하게 데워 먹거나 그냥 마셔도 된다.

고추차

고추의 성분을 함유한 고추차는 먹기 좋게 과일향이 첨가되어 있다. 고추의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몸이 찬 여성들에게 특히 좋다. 이외에 피로회복과 기관기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국화차

고혈압에 좋은 국화차는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말린 꽃을 우려내어 마시기 때문에 향기도 은은하고 좋다.